| 2014년 주님의교회 표어 |

주여, 나를 (롬 5 : 10)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함즐함울

즐거워 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_ 롬 12 : 15

| 오늘의 말씀 |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딤전 4 : 7 - 8

2014년 3월 9일 주일 제 331호 | 발행인 : 박원호 | 편집인 : 김학원 |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 02-416-5181~2) | 편집 : 함즐함울팀 | 주님의교회 홈페이지 www.pcltv.org

참회의 수요일, 변화의 40일

- 사순절을 맞아 되새겨 보는 절기의 뜻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리라"

3월 9일은 사순절의 첫 주일이다. 사순절의 시작을 '참회의 수요일' 또는 '재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고, 이날부터 부활 전야까지 이어지는 40일을 사순절이라 한다. '재의 수요일'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 3:19)는 말씀에 따라 머리에 재를 얹는다는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지점을 생각하고, 그동안 허영과 위선에 가득찬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기간을 뜻한다.

성경에서 찾아보는 사순의 의미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을 뜻하지만, '4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는 구약성경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새로 세우기 위하여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다.(창 6:5~7:22). 애굽에서 노예의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르기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단련되었다.(신 29:4)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40일 밤낮을 머물렀고(신 9:18),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기 위해서는 40일 밤낮을 걸어야 했다,

예수님의 공생활 전 광야의 40일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단식하며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고(마 4:1~11), 부활하신 후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행 1:3). 성경에 나타나는 '40'이라는 숫자에는 이처럼 참회와 속죄로 삶 전체를 혁신하고 변화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순절 기간 40일은, 세속적인 삶에 물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마음을 돌이켜 보면서, 참회하고 속죄하며 생명의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를 하는 시기를 뜻한다.

간추린 사순절의 역사

부활절 전 40일의 전통이 초대교회에 기원을 둔 것은 아니다. 대략 3세기까지만 해도 부활절 전 2~3일 정도를 예수님의 수난을 기억하는 기간으로 삼았다. 313년 기독교가 로마제국에 의해 공인되고 나서 처음으로 열렸던 325년의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40일을 지내야 한다고 정했다. 계산 방법에는 지금과 차이가 있었는데, 7세기에 이르러 지금과 같은 사순 시기가 정해졌다.

사순절을 위한 올해의 주제

40일이라는 기간은, 참회와 속죄로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금식이나 금욕 등으로 절제 있는 생활을 하는 것도 그 하나일 것이다. 주님의교회 교육목회원에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12: 24)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의미를 묵상하고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며 삶으로 경건과 절제, 희생과 나눔, 성찰과 회복의 시간을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와 십자가"의 삶을 되새기려 하고 있다.

함즐함울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3) 율동하는 유치부 어린이들의 눈 속에 봄이 가득하다.

2014년 특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 2 | 사역 간증 / 아버지학교 > 3 | 소통의 공간 / 정신학원 > 4 | 청년부 예수친구사역 > 5 | 교회 단신 > 6

우리 신문은 자연보호를 위해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2014년 특집 I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 함즐함울에서는 2014년 연간특집으로, 각자의 삶에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려 애쓰고 고민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다양한 형식(간증,수필, 논설, 독후감,여행기, 서간문 등)으로 hamletter@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싣겠습니다. **함즐함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의 공존 - 베들레헴을 지나며

1월의 추운 날씨는 내게는 고통이지만 이스라엘의 겨울은 축복이란다. 밤늦게 베들레헴에 도착한 다음날 아침, 눈을 뜨고 무작정 밖을 나갔다. 이곳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인데 말구유를 찾고 아기예수님을 경배해야 할 것 아닌가? 호텔을 빠져나와 말로만 듣던 이스라엘 길을 축복의 염원을 담아 걸었다. 라운드 어바웃 길을 돌았다. 그런데 건물들의 벽이 두껍고 어른보다는 어린 아이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이 근처 유치원이 있나보다. 옹기종기 모여앉아 있는 아이들이 해맑음 미소를 짓고 있다. 수줍음과는 달리 입성이 초라했다.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크리스마스트리 불빛이 있는 골목길을 계속 걸었다. 스타스트리트였다. 성탄절에 트리 장식을 한 이스라엘의 유일한 곳이란다. 그런데 대문이 철로 되어 있고 튼튼해 보였다. 가까이 보니 구멍 같은 게 보였다.

숙소인 그랜드 호텔 뒤 라운드 어바웃길, 나중에 다시 와서 사진 찍기를 원하는 깨끗한 사내애들을 찍음. 현재는 팔레스타인들의 연합으로 호텔을 지어 관광업에도 진출하고 있음

총자국이라 했다. 그리고 20미터를 더 걸으니 교회가 나왔다. 반가웠다. 순례자의 길인데 교회라니 얼마나 반가웠겠는가? 교회주변안내도에는 8개의 예배 처소가 표시되어 있었다. Nativity Church, Mosque of Omar, 시리아정교회, 그리스캐톨릭교회, 크리스마스 교회, 사라센 교회, Milk Grotto교회, 인프라 모스크. 아하, 이곳이 예수님의 탄생지라 모든 종교가 성지로 생각하는 것이구나! 깨달음을 잠시 뒤로하고 왠지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곳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했기 때문이다. 약간의 두려움이 생겼다.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였다. 돌아가는 길에 허름한 복장의 남자가 S자모양의 빵과 계란을 사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야말로 성화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빵, 욥이 고난에 기도하며 먹는 빵 모습이었다. 그런데 허름한 옷차림이 소외받은 예수님처럼 보여 가슴이 아팠다. 후에 안일이지만 이곳이 팔레스타인 자치주라 주민들이 생산이 없어 가난하며 큰 벽을 넘어 이스라엘에서 살아가기는 것이 어렵다 했다. 아직 자유와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 곳이었다. 주여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해주소서. 마음으로 연민을 품으며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번 순례의 목적이 '주여 평화의 도구로 쓰이게 하여 주소서!'인데 아 나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하나 한참을 망설였다.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 힘쓰는 평화 센터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는 베들레헴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곳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에 대한 가이드의 평가는 냉정했다. 에루살렘에 존재하는 현상은 한 국가 두 민족 세 종교라 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있고 그 가운데 유대교 기독교 회교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은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있는데 종교인은 세금을 내지 않고 군대도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다. 비종교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모두가 군대를 2~3년 간다했다. 다행스러운 일은 군대 복무에 남녀 군인이 같이 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협력하여 청년기의 초기를 잘 극복한다는 것이다. 어린나이에 얼마나 힘듦이 있을까 연민의 정이 간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구분짓는 큰 담벼락이 점점 멀어져 가자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위에서, 매번 제게 주신 놀라운 축복,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 시점인데 어찌하오리까? 가슴에서 치밀어 오는 무능함에 대한 한탄을 누르며 이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아직도 분쟁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평화를 위해, 아직도 배고픔과 가난함에 짓눌린 사람들을 위해,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친구와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

하태원 안수집사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56

四 福音書 (사 복음서 Gospel)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 : 8)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좋은 소식, 기쁜 소식(good news)이란 의미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기쁨의 소식인 것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은총과 영생의 복락이다. 이는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文字的(문자적)意味(의미)

★四(넉 사): "사방"을 뜻하는 口(에워쌀 위)와 "나누다"의 뜻이 있는 八(여덟 팔)을 합쳐 "에워싸인 방향을 나누어보니 동서남북 넷이다" 라는 문자가 되었다.

★福(복 복) : "제사상 또는 神(신)"을 의미하는 示(보일 시)와 畐(가득 찰 복)이 결합 되었으므로 "신께서 원하는 것을 가득 채워 주시니 복이다" 라고 풀이할 수 있다.

★畐(가득 찰 복) : "모이다"의 뜻이 있는 一(한 일)과 "물건, 재물"을 상징하는 口(입 구)와 "화려함, 아름다움"의 뜻이 있는 田(밭 전)의 결합문자 이므로 "모인 재물이 아름답게 쌓여 있으니 창고에 가득 찼다" 라고 풀이할 수 있다.

★音(소리 음) : "날카로움, 분명함"의 뜻을 지닌 辛(찌를 건)과 "말하다"의 뜻을 지닌 曰(가로 왈)의 결합체로써 "분명한 의사전달의 수단으로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매체는 소리이다" 라는 의미를 만들었다.

함즐함울

사역 간증 > 아버지 학교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1월 12일 시작된 아버지학교가 지난 2월16일 은혜와 감동 가운데 그 막을 내렸다. 아버지학교는 이 세상의 남성을 경건한 남성, 가정의 목자, 교회의 지도자, 사회의 청지기가 되도록 하는데 그 비전이 있다.

아버지학교이면서 남편학교이고 할아버지교이기도 한 이 모임은 5주간 매 주일 오후 4시에 시작하였다.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대고 도망갈까 했던 지원자 아버지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지해 지고 점점 더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버지학교의 매력이다. 아버지학교는 5주간 매주 다른 주제를 다룬다.

1.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는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자녀와 후손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하던 자신이 어느 새 아버지를 닮아 자신도 가부장적인 아버지로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자신을 되돌아 보고, 자신의 아버지와 또 가족들과 용서하고 화해하며 선한 영향력을 물려 주기고 다짐한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네게 그 얼굴을 비취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룰 원하노라” 라는 축복기도를 배우고 자녀와 아내에게 하도록 숙제로 받는다.

2. “아버지의 남성” : 오늘 날 아버지의 자리가 위태로워진 것은 아버지의 그릇된 남성문화에 기인한다. 체면문화, 일문화, 음주문화, 성, 도박, 중독, 지나친 레저 등 잘못된 문화로 가족을 외면하다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남성성의 4가지 기둥은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진 왕, 가족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전사, 권위 있는 진정한 스승, 친구 같은 아버지가 남성의 4가지 기둥이다. 진정한 남성상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한다.

3.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는 자녀의 삶의 원천, 삶의 지표, 자녀의 자부심, 올바른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 주는 자녀의 미래의 보장이 되어야 한다.

4.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권, 말씀권, 신앙전수권을 받았다. 이 날은 예수님을 모르던 아버지들과 미지근한 신앙의 아버지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원자와 스텝들의 가슴에 진하게 느껴지는 날이기도 하다.

5. “아버지와 가정” : 이 날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여 천국잔치를 가지는 날이다. 아내의 발을 씻으며 아내의 눈물과 땀을 씻기며 용서를 구하는 때이다. 세족식 자리는 언제나 숙연하다. 여기 저기 흐느낌이 이어지고, 돌처럼 딱딱하던 마음의 벽이 성령의 만지심으로 허물어지고 새롭게 되는 순간이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잔치 같은 축제를 즐기며 행복한 삶을 위해 새 출발하는 날이다.

우리 교회에서 5주간 진행된 이 아버지학교에서 지원자들과 가족들은 삶을 나누고 숙제와 강의 등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학습하였다. 알콜 중독자이며 폭력적인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가족들에게 사랑을 주어본 적이 없다고 오열하는 아버지, 가부장적인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해 자녀와 아내를 한 번도 인정하고 칭찬하지 못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용서하며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며 뜨겁게 흘리는 아버지의 눈물, 힘들었던 생활을 고백하는 아내의 고백에 여기 저기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와 아내들, 바로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리라. “아버지!”라는 이름은 듣기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 뭉클한 무엇인가가 올라오는 말이다. 이런 아버지들이 자녀와 아내를 허깅하며 말씀으로 축복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곳이다. 술자리가 아니면 말을 못한다던 아버지들이 그칠 줄 모르고 이야기 꽃을 피우는 곳이기도 하다. 별거하던 부부도, 이혼직전의 숙려기간의 부부도 화해하고, 불신자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미지근한 신앙의 아버지들이 대부분 영적으로 각성하는 곳이 이번 아버지학교다. 그래서 아버지학교는 선교프로그램으로도 훌륭하다. 전도대상자로부터 회비를 받고 5주간 매 주 다섯 시간 이상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다. 첫 날 굳은 표정한 아버지들이 환한 얼굴로 용서하고 화해하고가족들의 손을 잡고 돌아갈 때 스텝들이 뿌듯한 헌신의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는 곳이기도 하다.

5주간의 아버지학교를 수료한다고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버지들은 이제부터 삶의 방향과 목표를 가족들을 향하도록 결단했다. 아버지학교에서 배우고 학습하며 결단한 것들을 삶에서 실천하여야 한다. 이는 또한 설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아버지학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운동이고 삶의 실천운동이다. 아버지들은 외친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박중순 장로

교회용어, 이것만은 고치자 > 예배, 예식 용어 편 3

축제 (X) : 잔치, 또는 때에 따라 절기행사, 축하행사 (O)

축제라는 한자어의 기원이 사당에서 제사 지내는 것에 있고, 일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제사 방식을 영어의 ‘festival’에 해당하는 ‘축제’라는 한자어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한국어에 도입되었다. 따라서 성경대로 잔치, 또는 때에 따라 절기행사, 축하행사 등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참고로 공동번역에서는 57회, 표준새번역에서는 13회에 걸쳐 무분별하게 ‘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룻기서, 욥기서, 잠언서, 아가서 (X) : 룻기, 욥기, 잠언, 아가 (O)

‘룻記書, 욥記書, 箴言書, 雅歌書’ 등으로 말하거나 쓰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자체에 記, 言, 歌 등이 있어 ‘書’ 자가 의미상 과잉표현(redundancy)이 되기 때문이다. ‘創世記’ 나 ‘출애굽記’ 에 ‘書’ 자를 붙여 ‘創世記書’로나 ‘출애굽記書’로 쓸 수 없는 것과 같다. ‘啓示錄’에 ‘書’ 자를 붙일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시편 ○장 ○절 (X) : 시편 ○편 ○절 (O)

때로 시편의 어떤 구절을 나타낼 때, 시편 몇 장 몇 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몇 장과 몇 절은 산문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한자를 쓰는 중국어 성경이나 일어 성경에서도 시편의 각 장을 ‘편’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X)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O)

설교를 할 때 관용적으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말하는 이가 그 동사 ‘사랑하시는’의 주체가 되므로 옳지 않다. 왜냐하면, 말하는 주체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존대를 나타내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 / **함즐함울** 정리

섬기는 손 2

컵 2,000개!
주일마다 교우에게 제공되는 커피와 차를 위해 준비되는 컵의 숫자입니다.
세척하고, 멸균소독기 속에 넣고,
다시 주일 새벽이면 이 많은 컵을
꺼내는 이 손, 낮은 곳을
따뜻하게 섬기는 귀한 손입니다.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 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실 분은 유정식 안수집사(010-6290-2003)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함즐함울**

> 이 면은 교회의 세대간 소통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번호에는 정신학원에서 최근 여러 소식을 보내주었습니다. **함즐함울**

127년 전통의 정신학원, 날로 새롭다

주님의교회가 깃들어 있는 정신학원은 1887년 미국 북장로회 의료선교사 애니 앨러스가 설립한 정동여학당에서 비롯된 전통 있는 명문 사학이다. 1998년 김마리아회관과 김필례관을 건축, 기증하고 다시 임대해 교회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한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믿음의 식구가 되었다. 127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정신학원은 그러나 지금도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정신여고

자기주도 학습실 확대

정신여자고등학교는 2014년 자기주도적 학습공간이 확대되어 학습여건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지난 12월 다목적 교육 공간 건물이 신축됨에 따라 본관 5층 도서실에 있던 책이 내려왔고, 그 자리에 자기주도학습실이 마련되었다.

이로 인하여 1,2학년 학생들도 자기주도학습을 하게 되었고, 각 실 당 70석 씩 책걸상이 마련되었다. 전교생 1,500명에 비해 좌석이 충분하지 않지만 기존 자기주도학습실 150석을 합쳐 총 290명이 방과 후에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2013년 교육과정 우수학교 표창 - 강동교육지원청

정신여자고등학교는 강동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3년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창의인성 교육 교육과정의 모범적 운영으로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표창을 받았다.

정신여고의 이희천 교감은 "수업방법개선, 모범적인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외국어능력 강화교육, 3개년을 연계한 진로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강화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다방면의 봉사활동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이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신입생 선호도 높아

고등학교 신입생은 학교 선택제 배정 방법으로 희망교에서 60%추첨되고 인근학교로 40%가 강제 배정된다. 서울시 강동, 송파구 평균 학급당 인원은 31.6명이지만 본교는 38명에 이른다. 그 이유는 강동, 송파 관내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정신여고 홍보를 담당했던 주예경 전교무부장은 "중학생들이 본교를 희망하는 이유는 아마도 우수한 입시성적, 선생님들의 열의, 훌륭한 교육과정, 좋은 시설, 편리한 교통, 많은 장학금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여중

2013학년도 우수학교 평가

정신여자중학교는 2006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는 최근 학교평가에서 교육감상, 영어교육 우수학교 표창, 교육연구정보원장상을 수상하여 서울시 우수학교로 평가 받았다. 매년 평가로 변경된 2013학년도 평가에서도 전 영역(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교육활동, 학교운영 및 지원, 교육성과)에서 고루 우수한 성적을 받았으며, 특히 기독교교육에 기초한 인성교육(나눔과 섬김 수련회, 마음의 거울 등),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영어교육(영어UCC대회, 영어Dubbing대회, Presentation대회, English Festival 등), 다양한 예술교육(성가경연대회, 동아리발표회, 전시회, 연극정기공연 등),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특별사업에 대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결과로 정신여자중학교는 지역사회의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타 지역의 전입생들로 부터 입학을 선호하는 학교로 그 위상을 높여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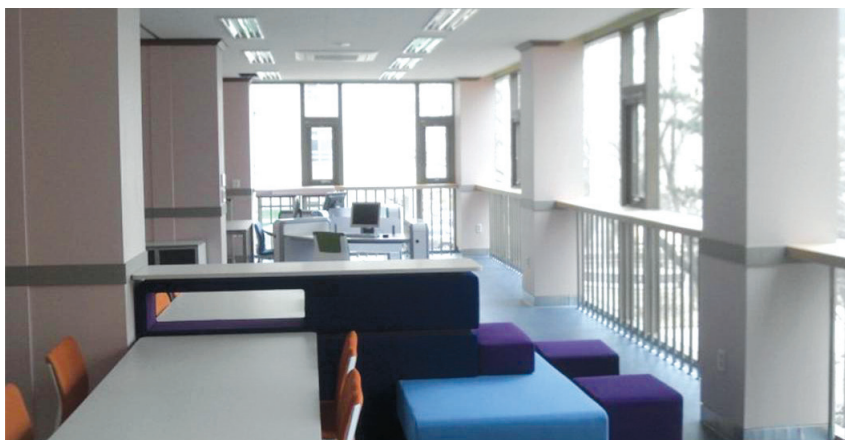
2014학년도부터 선진형 교과교실제 시행

정신여자중학교는 서울시교육청 선진형 교과교실제 사업에 선정되어 서울시교육청의 지원금으로 32개 교과교실, 4개의 홈베이스, 3개 교사연구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였고, 각 층마다 미디어스페이스 4개실 증축하였으며, 주님의 교회에서 건축하여 기증한 다목적 교육관(2,410.34)에는 도서실(1,2층), 영어 및 제2외국어 교과교실(3,4층), 다목적 체육관(5층)을 조성하여 2014학년도 1학기부터 학생들은 각 교과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교육기자재를 갖춘 교과교실에서 새로운 수업모형(실험, 실습, 토론, 협동학습 등)으로 공부하게 되었다.

제101회 정신여중 졸업식

2014년 2월 11일 정신여중 제101회 졸업생 443명의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졸업식 1부 공식행사를 마치고, 2부에서는 반별로 한 해 동안 활동을 모아 제작한 추억스케치, 경연대회 우승팀의 팝송(Let it go), 학생회의 뮤지컬(그땐 그랬지), 교사보컬(동행) 등 기존의 졸업식과는 확연하게 다른 졸업축제로 참석한 내빈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졸업생들 자신들이 진정한 주인공이 되어 축제로 승화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하태원 교사



정신여중의 새로 깨끗이 단장된 교과교실 전경

2014년 청년부 예수친구사역을 소개합니다

청년부는 2014년부터 청년부 겨자씨 모임에 교회 전체의 양육 훈련인 예수친구사역을 도입하여 진행합니다.

예수친구사역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당부하신 제자화 사역으로서,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삶을 함께 하는 제자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청년들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읽고 나누며, 신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양육을 받게 됩니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청년' 예수친구사역의 가장 큰 특징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와 관심사를 반영하여 다양한 신앙생활의 경험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교재를 새롭게 편집하였습니다. 청년들은 겨자씨 모임에서 이 교재를 통해 영적 성숙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12단계 성경공부와 연계

또한 청년예수친구사역은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지속된 12단계 성경공부 집중강좌와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단계 성경공부를 통해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묵상했다면, 이번 청년예수친구사역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청년부는 1월 12일(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예수친구사역을 출범하였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특별히 4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 함께 예배했습니다. 예수친구사역을 시작하는 이날 가장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동일한 꿈과 비전을 품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날 박원호 담임목사님은 예수친구사역에 동참하는 청년들을 위해 직접 오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청년들은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기독교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예배 후 푸른초장에서는 청년들에게 예수친구사역 양육교재를 판매하고, 가방을 배부하였습니다. 양육교재는 분기별로 제작하며, 이번 1-3월은 산상수훈 - 팔복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겨자씨모임에서 이 교재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나눕니다.

다양한 양육강좌 개설

앞으로도 청년예수친구사역은 다양한 양육강좌를 통해 계속될 예정입니다.

예비리더교육인 LETS(Leadership Education&Training School) 뿐만 아니라, 기도학교와 성경학교 또한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신자와 신입생을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과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지는 FBS(Faith Basic School)를 연2회 개설할 예정입니다.

2014년 1월에는 청년부 동계 수련회에 이어서, 2월에는 청년 예친사 양육 1단계로 F.B.S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9시에 모여서 기도, 말씀, 구원, 예배라는 주제에 대해 강의를 듣고, 각 과와 관련하여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관련된 소책자를 읽고 나서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번 양육을 통하여 청년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김삼열 전도사

2014년 해외선교 비전트립팀을 모십니다.

비전을 품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을 찾습니다. 비전트립은 선교나 단순한 봉사를 너머 순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그 곳에는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주님께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1. 방문 국가

국가	기간	사역 내용	모집인원	팀장
베트남	7/30(토)-8/4(월)	의료, 집짓기, 구제 사역 등	30명	김용규 피택안수집사(☎ 010-2034-7912)
키르기즈스탄	7월 초	여름성경학교, 자원 봉사 등	25명	이상록 안수집사(☎ 010-3892-7662)
코스타리카	8/4(월)-8/13(수)	의료, 구제사역 등	10명	김기창 안수집사(☎ 018-364-0435)
케냐	8/1(금)-8/10(일)	의료, 고아원 구제 사역 등	15명	정영숙 권사(☎ 010-3210-2435)
헝가리	7/21(월)-7/29(화)	종교 개혁지 순례와 평화의 길 체험	10명	박석진 안수집사 (☎ 010-5092-8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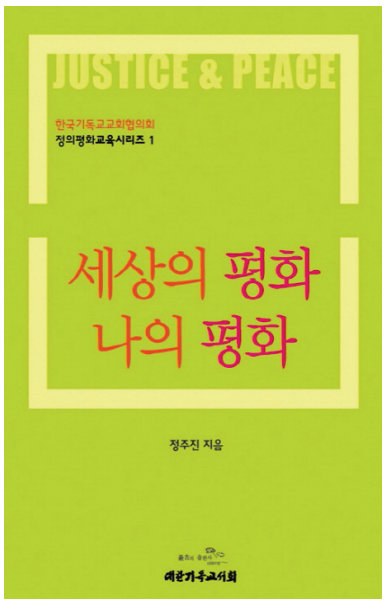
2. 신청 자격 및 참고 사항

1) 신청자는 주님의교회 등록 교인에 한합니다.
2) 항공료와 비자 발급비 : 개인 부담. 단 학생(대학원생과 청년부 등록 청년 중 직업이 없는 분 포함) : 항공료 30% 지원.
사역비와 여행자 보험료 : 교회 지원 (헝가리 제외).
청년은 가급적 청년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선택은 한 곳만 가능합니다.
4) 신청 마감 : 3월 30일까지 (교회 1층 로비 신청 부스 운영)
5)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을 초과할 때는 예비 순서로 접수됩니다
6) 신청하신 모든 분들은 추후 비전트립 교육을(6/29, 7/6 주일 오후 3시, 2회 예정)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7) 비행기 사정과 현지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문의 : 국가별 팀장 또는 비전트립팀장 이병직 안수집사 (☎ 010-5285-7060)

평화의 삶 위한 이 한권의 책

〈세상의 평화, 나의 평화〉



정주진 지음, 대한기독교서회, 2012

〉'평화의 삶 위한 이 한권의 책'은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음에 도움이 될 좋은 책들을 선정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추천 도서도 환영합니다. **함즐함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참다운 의미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국내 최초의 평화학 박사가 쓴 이 책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정의와 함께 하는 평화("정의로운 평화")이고, 참된 평화의 반대말은 폭력이라는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 가득합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와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같이 찾아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김정형 목사

교회 단신

예친사 4기 서약식과 예친사 개강

예친사 4기 훈련생 약 200명이 2월 14~15일 수련회를 갖고 예친사 1단계훈련을 시작했다. 이어 2월 16일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서약식을 가졌다. 2월 18일에는 예친사 2, 3, 4기 훈련생이 전체 개강 모임을 가졌다. 해를 거듭하면서 주님의교회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함즐함울**

제6기 늘푸른대학 개강예배와 입학식

3월 4일 늘푸른대학 6기가 개강했다. 신입생 약 120여 명과 스탭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정 소개와 스탭 소개에 이어 한국무용 "호산나 무용단"의 축하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입학식 후에는 점심을 함께하며 친교를 다졌다. **함즐함울**

함즐함울 카툰